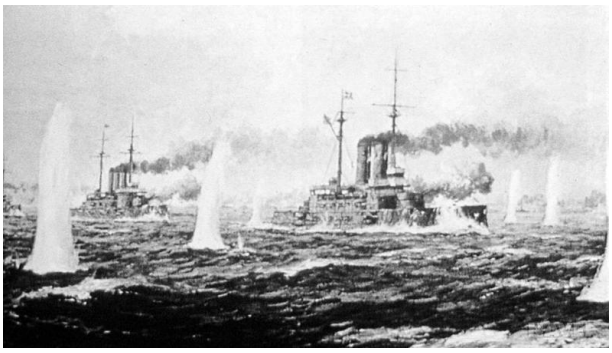
러일전쟁과 이순신

미팅의 정석 48



1905년 5월 28일 쓰시마 해협 내의 쓰시마 섬 근처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해군에 의해서 궤멸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해전에서 사망 116명, 부상 590여 명을 기록했을 뿐이지만, 러시아 측은 38척 중 19척이 침몰하였고, 사망 4,830명, 포로 7,000명 등으로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러일전쟁 승전 축하연이 있던 날 밤, 훗날 일본 역사 10대 영웅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도고 제독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독님의 이번 전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폴레옹을 트라팔가 해전에서 물리친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만한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러자 도고 제독은 그 기자를 즉각 다음과 같이 야단을 쳤습니다.

"러시아를 물리친 나에게 있어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나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않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항상 승리를 끌어내었다. 나를 이순신 장군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순신 장군에 비교한다면 나는 하사관 수준도 안 될 것이다."

넬슨과 도고는 몇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넬슨이나 도고와 달랐던 점은 완벽한 작전으로 병사들을 소중히 했다는 것과 인격적으로도 존중할만한 영웅이라는 점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 1848~1934) : 일본의 해군 제독. 청일전쟁 때 나니와 함장으로서 청국군함 고승(高陞)을 격침시켰고, 러일전쟁 때는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 동해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정자전법(丁字戰法)으로 격파했다.

※ <미팅의 정석>은 http://blog.daum.net/holbon 에서 전편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